

---

제4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개회식

---

일시 1956년10월22일(단기4289년)(월) 상오10시30분

---

식순

1. 개회
2. 국민의례
3. 식사(의장)
4. 인사말씀(시장)
5. 만세삼창(부의장)
6. 폐회

---

(10시 30분 개의)

○시정과장 이성우; 지금부터 제4회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일동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에는 의장의 식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김진용; 식사

제4회 임시회의를 오늘로서 열게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의는 여러분께 보여드린바와 같이 일시차입금 기타의 휴회중에 많은 의원들이 노력해주신 운영처리사항 그 밖에 서울시교육위원회 조례변경등등 여러가지 긴급하고 긴급한 일이 많이 상정되게 될것입니다. 도라보건데 지금까지 3회 임시회의를 거쳐서 여러의원제씨께서는 진지한 태도로

철저하게 토의해주시고 의결해주셔서 여러가지 우리의회가 시작된지 한달반이 남직한 우리시의회로서는 다대한 성과를 거둔것은 사실입니다.

하나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이번 일로부터 좀 우리의원으로서 자중자애해서할 몇가지를 오늘부터는 특별히 좀 주의해줄것을 바라는바이올시다. 물론 우리가 자중해서 시민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을 47명이 다같이 목적함으로서 좀더 여기에 대해서도 차이점을 발견할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 다만 개인개인의 언동에 의하여 제반의 의혹을 풀수있다고 생각하는바입니다. 반드시 자기할바 자기몸을 삼가함을 우리의 신조로서 생각하고 시민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을 언제든지 생각하셔야 될것이라고 하는것은 세간에서 이야기하는 소리입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고해서 자기마음대로 할수없다는것이 역시 자기몸을 살피고 근신하는 사람의 행동이라고 볼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원은 전부 시민의 시청을 집중해서 친목사수에 이러한 경계를 삼어가지고 특별히 이번 회의부터는 자중자애하셔서 인격상 비난이 없고 시의회를 잘 운영하셔서 누구든지 찬성하셔서 협력해줄것을 바라는 바입니다. 간단히 이것으로 식사에 말씀으로 대하는바이올시다.

○시정과장 이성우; 다음에는 시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시장님의 인사를 대신해서 부시장님께서 대독하겠습니다.

○부시장 신용우; 오늘 제4회 임시회의개회에 즈음하여 몇마디 인사말씀을 드리고자합니다. 우리의회가 벌써 4차에 공하여 열려지고 또 어언간에 시일에 지나감으로서 우리시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가지면이 차차로 이해되시고 또 협조하시는 길이 밝혀지므로써 수도시정발전에 공을 쌓아가게 됨에 대하여는 실로 경하하여 마지않는 바입니다.

이번 임시의회에 제안할 의제는 제3차때에 결말을 짓지 못한 일시차입조건을 비롯해서 몇가지 중요한 조례안 등에 대하여 여러분의 심의를 얻고서 하는 것입니다.

백육십만시민의 월동문제와 아울러 의원각위께서는 공사간에 다망하실 것으로 기약되오나

각위께서는 이 모든 안건의 중대성을 십분짐작 하시와 진지한 심의를 해주심으로서 금반 회기가 시정운영에 더욱 빛을 가져오는 회기로 결실을 맺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하는 바입니다. 간단하나마 이상으로써 인사말씀에 대합니다.

단기4289년10월22일

서울특별시장 고재봉

○시정과장 이성우; 다음에는 만세삼창이 있겠습니다.

선창에는 부의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일동만세삼창)

이상으로 식을 끝마치겠습니다.